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 특성 분석

Attachment Related Variables in Infant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nal Behavior

구 미 향
Koo, Mee Hyang

이 양 희**
Lee, Yang Hee

ABSTRACT

Two sub-studies were conducted to analyze attachment related variables in infant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nal behavior. The firs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related variables in infants. The sample consisted of 58 pairs of 11- to 13- months-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among attachment security, infant tempera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ecurity scores of the easy and difficult infants. Securely attached infants were rated as easier temperamentally than insecurely attached infants. The second study analyze maternal behavior characteristics. Subjects were this 30 mothers whose children were between the ages of 2 months and 24 months. The results identified four types of maternal behaviors. This study suggests different method of assessing subjective attributes of individuals by introducing Q-methods to the field of child development.

• 애착(attachment), 모성행동(maternal behavior), Q방법론(Q-methodology)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영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의 물리적·정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모자관계는 영아기 발달의 핵심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다양한 모자관계의 특성 중 특히 애착과 모성행동은 초기 양육환경의 질을 결정하고 이후 발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이들 두 요인에 대해 영아기 애착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고 모성행동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애착은 일차적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로서 이후 발달과정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영아가 일차적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이후의 발달경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안정애착이는 불안정 애착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고(Cassidy, 1988),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이 우수하고(Main & Weston, 1981; Schneider, 1991), 부정적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Kobak & Sceery, 1988). 특히 불안정 애착유형 중 비조직 유형은 위험성이 높은(high-risk) 집단과 임상집단, 그리고 피학대 아동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보고됨에 따라 임상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Car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Crittenden, 1985; Lyons-Ruth, Zoll, Connell & Stahl, 1987).

어머니의 양육행동, 즉 모성행동은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

져 왔다. 구체적인 모성행동특성들은 흔히 양육방식이라는 커다란 범주속에 포함되어진다. 양육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Baumrind(1966;1971)가 제시한 권위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인 방식이다. 이 세가지 양육방식에 Maccoby와 Martin(1983)은 방임적(neglecting)인 양육방식을 첨가하여 이들 각 유형의 특성을 반응성(responsiveness)과 요구(demands)라는 두 선형차원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즉 반응적이며 성숙에의 요구수준이 높으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양방적이고 상호적인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으로, 비반응적이고 거부적이면서 요구 및 통제 수준이 높으면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방식으로 분류된다. 또한 요구와 통제 수준은 낮고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면 허용적(indulgent) 양육방식으로, 거부적이고 반응적이지도 않으면서 요구 및 통제 수준도 낮으면 방임적(neglecting) 양육방식으로 정의된다.

애착안정성과 관련하여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는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Egeland & Faber, 1984; Goldsmith & Alansky, 1987)하는 반면, 영아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이며 과잉자극을 주는 어머니는 영아로 하여금 불안정 회피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Isabella, 1993; Smith & Pederson, 1988). 또한 비밀관적이며 불충분한 자극을 제공하는 모성행동 특성은 불안정 저항애착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심각한 양육상의 문제와 불안정한 애착관계간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다(Main & Solomon, 1990).

이와 같이 다양한 모성행동특성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개념은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성 민감성이었다. Ainsworth 등이 발티모어에서 26명의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년간 가정 관찰한 결과, 여러 모성행동 중 특히 모성 민감성이 영아의 애착안정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 후 오랫동안 모성 민감성은 애착안정성의 결정적인 선행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최근 Pederson 등(1990;1998)은 그들이 개발한 모성행동 Q-set (Maternal Behavior Q-set)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모성행동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모성민감성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성민감성이 애착안정성의 결정적인 선행요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De Wolff와 IJzendoorn(1997)은 비록 민감성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애착안정성을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애착안정성과 관련하여 민감성 이외의 다른 모성행동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성(Cowan, 1997;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Kerns, Cole, & Andrews, 1998)과 아울러 개념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모성행동 특성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Donovan, Leavitt, & Walsh, 1997; Thompson, 1997, van den Boom, 1997).

한편 모자관계를 어머니와 영아의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인식하려는 관점의 전환에 따라 모자관계에 영향을 주는 영아의 특성으로 부각되어온 것이 바로 기질이다. 기질은 인간의 행동특성으로서 항상성을 가질 뿐 아니라 행동 및 성격발달에 있어 개인차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영아의 기질과 애착안정성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이정희, 1993; 홍계옥, 1994; Goldsmith & Alansky, 1987). 그러나 다

른 한편에서는 기질로서 모자애착관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이영환, 1992). 기질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질과 모성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영아의 욕구에 대해 둔감하거나 통제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유명희, 1991; 최영희, 1990; Donovan et al., 1997; Pederson et al., 1990)와 더불어 영아의 기질과 모성행동간에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박성연 외, 1996).

최근에는 생태학적·가족체계적 관점에 애착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성행동과 영아의 기질적 특성 외에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들이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갈등이 적고 부부간의 화합이 잘 되어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것이며, 그 자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게 된다(Goldberg & Easterbrook, 1984; Gloger-Tippelt & Huerkamp, 1998). 또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만(Cohen & Wills, 1985), 외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나 도움이 차단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많고 부모효능감은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신숙재, 1997).

한편 애착의 연속성과 세대간의 순환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생애 초기에 형성한 내적실행모델이 성인이 된 후 자녀와의 애착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아동기때 자신의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성인은 자신의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민감하고 지지적인 양육특성을 보인다(최해훈, 1997; Belsky, 1984; Cowan et al., 1996).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경험이 부모로서의 양육방식으로 세대간 전승된다는 연속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성인이 된 후 자녀와 애착관계를 맺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그 자신의 어린시절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기억, 감정, 기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Cowan et al.,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애착안정성은 다양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나 인성특성, 스트레스나 지지를 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영아의 특성 등이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성행동의 주관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모성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외현적·내재적 행동특성으로서 자녀양육에 관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유형별 특성을 밝힘으로써 영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나 준거를 적용하여 모성행동특성을 분석하여 왔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 문화권의 양육에 관한 전통과 가치, 신념 등을 반영하는 모성행동특성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연구 문제

1.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우울, 모성민감성,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영아의 기질 등의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2) 안정 또는 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라 애착관련 변인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영아기 모성행동의 주관적 구조와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애착관련 변인의 분석을 위해 생후 11개월부터 13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 어머니 5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들은 출생시와 조사당시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정상 분만아였으며, 어머니는 평균연령 28세의 비취업모였다.

모성행동 유형의 분석을 위해 생후 2개월~24개월 사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범위는 24세~41세(평균 31.9세)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30%, 대졸이 60%, 대학원 이상이 10%였다. 취업모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업주부였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은 대부분 중류층이었다.

2. 연구도구

1) 애착 안정성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 Q-set(Attachment

Behavior Q-set:AQS)의 개정판을 이 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 모성 민감성

어머니의 모성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Pederson 등(1990)이 개발한 모성행동 Q-set (Maternal Behavior Q-set:MBQ)을 구미향과 이양희(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우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김명권 (1984)이 번안한 BDI(Beck Depression Index)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78이었다.

4)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번안하여 간략형으로 수정한 유은희, 박성연(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94였다.

5) 사회적 지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척도(박지원, 1985)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였다.

6)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양육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전현진(1996)이 번안한 Epstein(1983)의 부모-도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

호와 수용 대 거부 차원을 통합하여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이었다.

7)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Fullard, McDevitt와 Carey(1984)가 제작한 영아기질 질문지(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TTQ)를 최영희(198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규칙성($\alpha = .79$), 기분($\alpha = .64$), 반응강도($\alpha = .68$), 반응역($\alpha = .64$), 적응성($\alpha = .59$), 접근성($\alpha = .78$), 주의분산도($\alpha = .83$), 지구성($\alpha = .62$), 활동수준($\alpha = .72$)이었다.

8) Q 표본

영아기 모성행동 유형의 분석을 위해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기술한 34개의 문항을 Q 표본으로 표집하였다.

3. 연구절차

애착관련 변인의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가정방문 일주일 전에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의 애착행동 특성을 관찰하고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 AQS 문항과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본 조사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두 시간 가량 모성행동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가정 방문 시 미리 발송한 질문지를 회수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AQS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는 가정방문 후 곧바로 MBQ를 분류하고 관찰자들간에 불일치하는 문항에 대해 논의하여 원 점수를 산출하였다.

모성행동 유형의 분석을 위해 영아기 모성행

동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8인,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 3인,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총 215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중 연구주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4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Q 표본을 6×10cm의 카드로 구성하여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9점까지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Q 분류가 끝난 후 '매우 그렇다'와 '전혀 아니다'에 분류된 진술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애착관련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 또는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검증

을 위해 다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성행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uanal PC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까지 각 진술문에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한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들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 분석

1)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민감한 모성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표 1>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결혼 만족도	영아 기질	모성 민감성	사회적 지원	아동기 경험	우울	애착 안정성
결혼 만족도	1.00						
기질	-.21	1.00					
모성 민감성	.28*	-.15	1.00				
사회적 지원	.34**	.00	.33*	1.00			
아동기 경험	.09	.02	.44**	.33*	1.00		
우울	-.50**	.10	-.19	-.13	-.12	1.00	
애착 안정성	.09	-.34**	.29*	.12	-.01	.10	1.00

* p<.05, ** p<.01

지원을 많이 받으며 우울 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어머니일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 받았던 경험이 있고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으며 자녀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일수록 기질적으로 순하고 어머니로부터 민감한 양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 하위척도와 모성민감성간의 관련에 대해서는 기질의 하위척도 중 규칙성, 접근성, 주의분산과 모성민감성간에 유의한 상관이었다(표 2). 즉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위축되며, 외부의 자극에 쉽게 주의를 환기하는 성향이 높은 영아일수록 어머니가 민감한 모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애착유형별 관련변인의 차이

애착유형별 관련변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 점수의 상위 25%를 안정애착유형으로, 애착안정성 점수의 하위 25%를 불안정애착유형으로 구분하여 애착유형별 관련요인의 평균치의 차이를 t 검정하였다(표 3). 그 결과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영아의 기질($t=-2.67, df=26, p<.05$)에서 유의한 평균치의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정애착아가 불안정애착아보다 기질적으로 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별로 영아의 기질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두 집단간 영아 기질의 하위척도에서 평균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질 하위 척도 중 규칙성($t=-2.69, df=26, p<.01$), 기분($t=3.13, df=26, p<.01$), 적응성($t=2.81, df=26, p<.01$), 활동수

<표 2> 모성민감성과 기질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모성민감성 \ 기질하위척도	규칙성	기분	반응 강도	반응역	적응성	접근성	주의 분산	지구성	활동 수준
모성민감성	-.52**	-.16	.18	.18	.00	.28*	-.36**	-.01	-.03

* $p<.05$, ** $p<.01$

<표 3> 애착유형별 관련변인의 평균치의 차이검증

관련변인 \ 애착유형	안정애착(n=14)	불안정애착(n=14)	t(26)
결혼 만족도	64.43(9.21)	62.07(12.44)	.57
기질	244.57(19.86)	263.07(16.65)	-2.67*
모성 민감성	.55(.34)	.26(.44)	1.95
사회적 지원	49.50(6.68)	47.28(6.72)	.88
아동기 경험	131.43(15.95)	131.36(18.16)	.01
우울	6.78(4.58)	5.50(4.36)	.76

* $p<.05$

〈표 4〉 애착유형별 기질 하위척도 점수 평균 비교

기질하위척도	안정애착(n=14)	불안정애착(n=14)	t(26)
규칙성	25.14(6.68)	31.21(5.18)	-2.69**
기분	25.50(4.57)	30.64(4.11)	-3.13**
반응강도	36.64(4.96)	36.29(5.03)	.19
반응역	22.21(3.31)	20.57(2.62)	1.46
적용성	18.64(3.69)	23.07(4.60)	-2.81**
접근성	43.14(6.42)	39.29(7.78)	1.43
주의분산	24.93(5.84)	26.57(7.35)	-.66
지구성	19.00(3.44)	20.14(3.23)	-.91
활동수준	29.36(5.67)	35.29(5.62)	-2.78**

** p<.01

준($t=-2.78$, $df=26$, $p<.01$)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두 집단간에 유의한 평균치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불안정애착아가 안정애착아보다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느끼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영아기 모성행동 특성 분석

영아기 모성행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성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독특한 연구방법이다. Q방법론의 원리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성행동 유형이 발견되었다.

1) Q 유형의 형성

Qua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아기 모성행동의 주관성을 Q 요인분석 한 결과 네 개의 모성행동 유형이 밝혀졌다. 네 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6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3%, 제 2유형이 8%, 제 3유형이 7%, 제 4유형이 5%였다(표 5).

〈표 5〉 모성행동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Eigen value	13.00	2.33	2.05	1.48
변량	.43	.08	.07	.05
누적변량	.43	.51	.58	.63

네 개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유형간에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는 유형 1이 12명, 유형 2가 5명, 유형 3이 6명, 유형 4가 7명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모성행동 유형간의 상관관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1.00			
제2유형	.47	1.00		
제3유형	.60	.47	1.00	
제4유형	.72	.55	.59	1.00

2)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논의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유형의 Z-score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Z-score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Q 분류 시 적극 찬성과 적극 반대에 분류한 진술문의 선택이유를 고려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이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함축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영아기 모성행

동 유형의 명명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Q 방법론 전문가 1인, 아동학자 2인과 함께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각 유형의 특성을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영아기 모성행동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유형: 초보자(Rookie) 형

제 1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아기에 대한 애정과 양육활동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좋다는 것은 기준이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아기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므로 아기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애정적 접촉은 큰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확고한 주관과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아기의 상태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제 1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는 열두 명으로 평균 연령은 30세였고 취업모 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업주부였다. 중류층의 대졸학력자가 많고 첫 아이 어머니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제 1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표 7> 제 1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번호	Q 진술문	Z-score
23.	아기를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2.02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더...	1.72
3.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같이 노는 것을..	1.55
7.	아기를 키우는 이웃이나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책이나 친구, 어른들을 통해..	1.29
17.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1.25
34.	나는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1.10
33.	남편이 기저귀 갈고 우유 주는 일 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많고..	-1.10
32.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1.35
1.	집안이 여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물건 등을 곧바로...	-1.61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86
19.	아기와 함께 노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아기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87

속한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이를 요약하면, 제 1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아기와 신체접촉이나 활동을 즐기며 아기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아기를 키우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남편이나 타인 또는 책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아기의 건강과 영양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제 1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유형 1의 Z-score와 다른유형(유형 2, 3, 4)의 평균 Z-score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제 1유형의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칭얼댈 때 곤란함을 느끼고 아기와 함께 하는 활동을 즐기며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아기의 행동을 가능한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제 1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가중치(2.95)가 가장 높은 어머니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였다.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아기와 함께 노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아기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아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에 오히려 아기는 귀찮아하는 것 같다」,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였다.

<표 8>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Z-score	다른유형의 평균표준점수	차이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18. 아기가 이유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26	-1.17	1.44
3.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1.55	.25	1.30
17.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1.25	.01	1.24
5.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고..	-1.16	-1.19	1.03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			
32.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 시기가 내 ..	-1.35	-.33	-1.02
13.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통제...	-.59	.59	-1.18
1.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1.61	-.18	-1.43

이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엄마랑 함께 노는 게 아이 정서나 지능발달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집에 있으니까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보다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첫 아이라서 분유 안 먹이고 모유 먹이려고 노력해요. 처녀 때는 아이 예쁜지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쁘고 또 애정을 표현해야 아이 정서발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크면서 반응을 보이니까 더 예뻐지고 자꾸 아기를 보게 되요.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같이 노는 것을 서로 좋아해요. 처음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우울했는데 이제 안 그래요. 우울할 겨를도 없고 아이 때문에 더 활기차졌어요.”라고 하였다.

이외 제 1유형을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선택한 진술문과 선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제 1유형의 어머니들은 아기 키우는 일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평가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아기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기의 존재 자체에 상당한 만족을 느끼며 아기의 건강과 영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보채는 등 갑작스럽게 직면하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당황하거나 곤란을 느끼는 등 미숙한 면도 보인다. 제 1유형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어머니 중 네 명이 30세 이하의 첫 아이의 어머니였고, 한 명은 37세였으나 면담과정에서 “첫 아이와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아기를 처음 키우는 기분이라 다른 아기 엄마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라고 말한 것을 참고하면 제 1유형

은 양육활동에 의욕적이고 열성을 보이지만 실제적인 양육기술이나 경험은 부족한 “초보자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2) 제 2유형: 스타(Star) 형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제 2유형의 경우 모자관계의 중심은 어머니 자신이다.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의식적으로 멋진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성행동은 비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기 쉽다. 이들은 아기의 개성을 존중하는 한편 아기가 보이는 독특한 행동에 불안을 느끼는 양가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한다. “아기 때문에 귀찮고 우울해요”, “아기보다 남편한테 더 애정과 관심을 줘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양육활동은 때로 이들을 부담스럽고 우울하게 한다.

제 2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는 모두 다섯 명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2세였으며 취업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업주부였다. 제 2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이를 요약하면, 제 2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아기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하며 관심을 갖고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알지만 어머니 자신의 일이 우선이며 아기의 요구를 곧바로 들어주지는 않는다. 어려서부터 옳고 그른 일에 대해 교육할 필요를 느끼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가 아기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아기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불안해한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이 아기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표 9> 제 2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Z-score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많다.	1.80
2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1.58
28.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이의 행동에 매우 예민..	1.42
15.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41
2.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1.28
8. 아기가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면 몇 번 더 시도해보고 그래도 거부하면 억지로..	1.00
24.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발달장애가....	1.00
18.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1.06
11. 아기가 내게 보내는 신호들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1.21
33. 남편이 기저귀 갈고 우유주는 일 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많고...	-1.32
30.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을 해주고 싶다.	-1.35
34. 나는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1.40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41
26. 아기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라도 곧바로 아기의 요구를...	-1.44
16. 아기는 적응력이 없는 작은 생명이다.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1.44

<표 10>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Z-score	다른유형의 평균표준 점수	차이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28.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1.42	-.43	1.85
10.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71	-1.08	1.79
1.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61	-.91	1.52
24.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1.0	-.42	1.42
22. 아기가 예쁘게 보이는지 아기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80	-.24	1.05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			
3.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27	.86	-1.13
25. 아기가 심심해할 때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을 아기에게 가지고...	-.32	.96	-1.28
17.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75	.68	-1.42
26. 아기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라도....	-1.44	.40	-1.83

제 2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유형 2의 Z-score와 다른 유형(유형 1, 3, 4)의 평균 Z-score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

다. 제 2유형의 어머니들은 기타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아기에 대한 모성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며 의식적으로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아기로 인해 가정환경이 어지럽혀지는 것을 싫어하며 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아기의 웃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기와 상호작용 하거나 적절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기와 함께 하는 활동을 즐기지 않으며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 관심이 적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 되어 아기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 2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가중치(2.32)가 가장 높은 어머니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면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개성이라 생각한다」, 「아기가 심심해 할 때나 내가 가사일을 하는 동안 아기는 혼자 놀거나 TV를 보도록 한다」,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기의 행동에 매우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였다.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을 해주고 싶다」, 「남편이 기저귀 같고 우유 주는 일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많고 섭섭하다」, 「나는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였다.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는 신세대 어머니니까 아기를 개성 있게 키우고 싶어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원치 않고 우리 아기가 남

과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 하는 일 귀찮게 하고 참견하는 것이 싫어서 TV나 비디오를 많이 보여줘요. 아기가 엄마만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니깐 평상시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아기한테 최고급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남편이 잘 도와주고 아기도 잘 봐주고 그러니 남편한테는 불만 없어요. 아기보다는 남편한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내 외모에도 신경 많이 써요” 라고 하였다. 기타 모성행동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이 어머니는 아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때는 결혼자체도 원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혼자 놀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아기가 보내는 신호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아기가 울어도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그냥 울게 둔다고 하였다.

이외 제 2유형을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선택한 진술문과 선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제 2유형의 어머니들은 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못하고 생각과 행위에 불균형을 보인다. 즉 아기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아기의 독특한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아기를 위한 물리적·정서적 자극을 제공하는데 소극적이며 아기의 욕구보다 어머니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거나 어머니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아기에 대한 모성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육아활동에 소극적이고 냉정하며 어머니의 감정이나 욕구를 보다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는 “스타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3) 제 3유형: 양치기(Shepherd) 형

통제 속의 자유와 애정을 특징으로 하는 제 3 유형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이 특정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허용한다. 아기의 욕구와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주관이 뚜렷하다. 이들이 보이는 엄격한 훈육과 양육활동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려는 자세는 과도한 개입이나 방임이라는 극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는 여섯 명으로 그 중 두 명은 취업모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5세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종교를 갖고 있었다. 다른 유형의 어머니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제 3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를 요약하면, 제 3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아기가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을 구분하도록 교육시켜 버릇없는 아기로 자라지 않기를 바라며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기의 개성을 존중하고 아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배우자나 이웃으로부터 육아활동에 관한 도움을 받아들이고 아기의 남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냈다.

제 3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유형 3의 Z-score와 다른 유형(유형 1, 2, 4)의 평균 Z-score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은 기타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아기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부정

<표 11> 제 3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진술문	Z-score
15.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92
13.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1.50
2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1.49
2.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1.15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많다.	1.09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14
10.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1.23
27. 남편이나 친척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겨두었을 때 아기가 혹시 방치되는 것은...	-1.33
18. 아기가 이유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1.33
19. 아기와 함께 노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아기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40
24.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발달장애가...	-1.52
33. 남편이 기저귀갈고 우유주는 일 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많고...	-1.66
5.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1.76

〈표 12〉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Z-score	다른유형의 평균표준 점수	차이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30.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	.81	-.94	1.75
13.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통제...	1.50	-.10	1.60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			
28.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72	.28	-1.01
27. 남편이나 친척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겨두었을 때 아기가....	-1.33	-.26	-1.07
5.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1.76	-.66	-1.10
24.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1.52	.42	-1.94

적 정서를 아기에 대한 모성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거나 아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에서 요인가중치(1.63)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가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 였다.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보이면 화가 난다」,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발달장애가 있지 않나 걱정된다」 였다.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남의 이목 생각해서 젊은 아기 엄마들은 애들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는데,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쳐야 되요. 그래서 자주 간섭하죠. 일종의 가정교육인데, 시킨다고 아이가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된 것은 잘된 것, 못된 것은 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야 부모의 도리죠. 아직은 아기가 어리니까 생각 못해도 나중에 누가 아기 봐주면 돈도 벌고 싶고 하루나 이틀 어디 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 아기에 대해 부정적인 말 안들었으니까, 별로 다른 사람 말에는 신경 안써요. 내 방식대로 키우면 되죠. 나는 외모에도 신경 안쓰고 멋진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 뭐 있어요? 아기가 심하게 울지도 않고 아직은 아기가 이상하다고 걱정해본 적 없어요”라고 하였다.

이외 제 3유형을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선택한 진술문과 선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제 3유형의 어머니는 아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아기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태도와 더불어 아기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기의 개성을 존

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육아에 관하여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아기에 대한 모성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 한편 배우자나 이웃으로부터 육아활동에 관한 도움을 받아들인다. 또한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여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유형을 아기에 대한 애정과 통제, 육아에 관해 느긋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양지기 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4) 제 4유형: 가이드(Guide) 형

제 4유형의 어머니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성행동을 통해 애정과 자극을 제공하고 아기의 욕구나 상태에 민감하고 반응적이다. 양육에 대한 신념과 주관이 뚜렷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성적이고 규범적인 양육태도는 엄격하고 감정을 자

제하는 모성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제 4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는 일곱 명이며 평균 연령이 32세였다. 이들은 모두 전업주부였고 가정경제수준은 대부분 중류층이었다. 제 4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이를 요약하면, 제 4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아기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아기에게 옹고 그룹을 교육시키고 아기의 상태에 대해 민감하며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기의 개성을 존중하며 아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고 아기와 엄마 자신의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유형 4의 Z-score와 다른 유형(유형 1, 2, 3)의 평균 Z-score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기타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배우자가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고 아기를 키우면서 우울함

<표 13> 제 4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진술문	Z-score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많다.	1.95
15.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63
2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1.55
14. 아기를 혼자 놀게 하고 집안 일을 할 때 아기가 잘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	1.50
25. 아기가 심심해할 때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을 아기에게 가지고 가서 아기를 즐겁게...	1.27
2.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1.04
1.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물건 등을 곧바로 ..	-1.08
5.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1.10
18.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1.14
22. 아기가 예쁘게 보이는지 아기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1.34
10.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1.42
30.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을 해주고 싶다.	-1.49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2.14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기를 타인에게 맡기고 육아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양모는 아니며 아거나 엄마 자신의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제 4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가중치(1.30)가 가장 높은 어머니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아기가 심심해할 때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을 아기에게 가지고 가서 아기를 즐겁게 해준다」 였다.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아기가 이유 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스럽다」 였다.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잘잘못을 확실히 구분시키는 것이 좋죠.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아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해요. 내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 일부러 아기한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더 자극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아기한테 애정이 없었는데 예쁜 짓하고 잘 먹으니까 점점 사랑스러워요. 나 자신의 외모에는 별로 신경을 안써요. 전직이 간호사라 그런지 아기가 울고 아파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덜 당황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기타 모성행동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이 어머니는 아기가 아플까봐 걱정이 되면 책을 찾아보며 아기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 고치기도 쉬운데니 아기에게 대한 타인의 평가에도 불쾌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외 제 4유형을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선택한 진술문과 선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직·간접적 경험에 기초하여 아기의 발달에 유익한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모성행동을 보이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일관되게 아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표 14>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Z-score	다른유형의 평균표준 점수	차이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33. 남편이 기저귀갈고 우유주는 일 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02	-1.36	1.34
32.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팽창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 시기가 내30	-.88	1.18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			
31.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57	.47	-1.03
10.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1.42	-.37	-1.05
30.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	-1.49	-.17	-1.32
22. 아기가 예쁘게 보이는지 아기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1.34	.47	-1.81

〈표 15〉 네 유형간 높은 일치률 보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2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1.66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많다.	1.64
2.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면..	1.05
14. 아기를 혼자 놀게 하고 집안 일을 할 때 아기가 잘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	1.04
8. 아기가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면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67
4. 아기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바깥환경에서 접하는 실 사물에 대해 아기에게 많이 이야기..	.52
11. 아기가 내게 보내는 신호들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88
16. 아기는 적응력이 없는 작은 생명이다.	-.95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64

아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애정의 표현은 주로 아기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른 의식적인 반응으로 이해되며 어머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이성적으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인 육아 활동에 대해 어머니의 주관이 뚜렷하고 외부의 평가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지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을 “가이드 형”으로 명명하였다.

3)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기 모성행동 특성은 네 개의 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긍정적·부정적 동의률 보인 진술문들을 추출하면 <표 15>와 같다.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은 신체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고 아기의 존재로 인해 기쁘고 행복을 느끼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조망하고 모성행동의 유형별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첫째 애착안정성과 유의미하게 상관된 변인은 영아의 기질과 모성민감성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민감한 모성행동을 보일수록, 영아가 기질적으로 순할수록 영아는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성민감성과 애착안정성간의 상관은 Ainsworth 등의 초기 연구결과와는 달리 상관의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모성민감성은 영아 기질의 하위척도 중 규칙성, 접근성, 주의분산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영아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위축되며, 외부의 자극에 쉽게 주의를 환기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감한 모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애착유형을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관련요인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애착의 두 유형간에 영아의 기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정애착아가 불안정애착아보다 기질적으로 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질 하위척도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불안정애착아가 안정애착아보다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느끼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영아의 기질적 민감성이나 소심함 또는 매우 활동적이고 성마른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있다는 연구결과(Crockenberg, 1981; Seifer et al., 1996; Waters et al., 1980)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영아기 모성행동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욕적이지만 실제적인 양육기술은 미숙한 초보자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대다수가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로서 첫아이의 어머니였는데,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이들은 아기에 대해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기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기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의 육아활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은 확고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으로부터의 지원과 평가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 유형의 특성을 Baumrind(1967)등이 제안한 양육행동의 차원, 즉 통제(control), 요구(maturity demands), 의사소통(communication), 양육(nurturance) 행동의 차원에 비추어 볼 때, 모성행동의 상당부분은 감각적.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고 신체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양육활동과 자녀의 발달과 성숙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은 아기의 상태나 욕구에 기초한 상호적 의사소통 과정이라기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계획에 몰입된 일방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종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이지 못하여 비록 자녀의 상태에 민감하더라도 자녀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써 양육활동에 곤란을 겪게 된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모성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못하고 생각과 행위에 불균형을 보인다. 또한 아기가 어머니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아기에 대한 모성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자녀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일관성있는 양육과 훈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에게 신체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지만 다른 유형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됨으로써 자녀와의 의사소통과정에 혼돈과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유형은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신체적인 애정표현은 많이 하는 반면, 자녀와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사회화에 필요한 양육행동은 부족한 특성(이숙, 1987), 비일관적이고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며 방관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모순불일치(박명희, 1988) 또는 비적극적인 참여(박성연, 1989), 거부적이고 비반응적이며 동시에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낮은 방임형(Maccoby & Martin, 1983)과 유사한 모성행동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해진 규범 안에서의 자율을 허용하는 양지기 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아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아기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태도와 더불어 아기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기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라는 개념은 자녀를 사회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교육적으로 행하는 양육행동(Baumrind, 1967)으로 보았는데 이는 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즉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강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통제의 특성과 더불어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정서적으로 애정적이고 수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민감하거나 반응적인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은 Maccoby와 Martin(1983)의 양육방식에 대한 네 가지 분류 중 어느 특정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 및 통제와 수용 및 반응의 두 차원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인상이다. 스타 형과 비교해 볼 때, 이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적다. 또한 초보자 형과 스타 형과는 달리 타인의 의견이나 시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종교에 의지할 때, 개인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물러서서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양지기 형에 속하는 어머니 대다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평균연령이 35세 이상이라는 점은 이 유형 어머니들이 보이는 모성행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에 따라 양육 활동을 행하는 가이드 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욕구와 상태에 민감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며 아기의 발달을 증진하고 사회화시키려는 요구 및 통제의 모성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의 통제는 양지기 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더 확고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우울함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양지기 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아기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보자 형의 어머니들이 아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애정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합리적인 근거나 신념에 기초한 상호적이며 이성적인 애정과 모성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Maccoby와 Martin(1983)의 양육방식에 대한 분류 중 권위 있는 양육방식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 특성의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류층의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특성이 제한되어 있고 단기간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애착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찰연구가 진행될 때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시기 중 특히 영아기에 초점을 두었다. 영아기 이후의 모자관계의 특성과 모성행동 유형에 따른 자녀의 발달특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의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양식에서의 질적 차이를 연구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미향, 이양희(1998). 모성행동 Q-set의 국내준거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129-139.
- 김명권(1984). 생활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명희(1980). 아동의 대물애착의 성격규명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한국아동학회*, 131-148.
- 이영환(1992).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현진(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훈(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Rovin,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64(4), 598-600.
-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1989).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relations in maltreat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525-531.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de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y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owan, P. A. (1997). Beyond meta-analysis: A plea

- for a family systems view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601-603.
- Crittenden, P. M. (1985). Maltreated infant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85-96.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7). Cognitive set and coping strategy affect mothers' sensitivity to infant cries: A signal detection approach. *Child Development*, 68(5), 760-772.
- Eg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The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ion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Gloger-Tippelt, G. S., & Huerkamp, M. (1998). Relationship change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3), 633-655.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Kerns, K. A., Cole, a., & Andrews, P. B. (1998). Attachment security, parent peer management practices, and peer relationships in preschoolers. *Merrill-Palmer Quarterly*, 44(4), 504-52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yons-Ruth, C., Zoll, D., Connell, D., & Stahl, H. (1987). Infants at social risk: Relations among infant maltreatment, maternal behavior and infan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23-232.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Mussen, P. H.(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4, pp. 1-101). NY:Wiley.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1-160.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ed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9(5), 925-933.
- Schneider, E. L. (1991).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9, 251-266. 68(4), 595-597.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Thompson, R. A. (1997). Sensitivity and security: New questions to ponder. *Child Development*, 68(4), 595-597.

van den Boom, D. C.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Next steps for developmentalists. *Child Development*, 64(4), 592-594.

<표 16> Q표본

진술문

1.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물건 등을 곧바로 치우고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2.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면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개성이라 생각한다.
3.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4. 아기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바깥 환경에서 접하는 실사물에 대해 아기에게 많이 이야기해 준다.
5.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보이면 화가 난다.
6.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7. 아기를 키우는 이웃이나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책이나 친구, 어른들을 통해 아기를 키우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상의한다.
8. 아기가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면 몇 번 더 시도해보고 그래도 거부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9.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0.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11. 아기가 내게 보내는 신호들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12. 아기가 아플까봐 늘 걱정이 된다.
13.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14. 아기를 혼자 놀게 하고 집안 일을 할 때 아기가 잘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
15.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6. 아기는 적응력이 없는 작은 생명이다.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도움이 필요하다.
17. 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18. 아기가 이유없이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19. 아기와 함께 노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아기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아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에 오히려 아기는 귀찮아 하는 것 같다.
20.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다.
21. 아기가 심심해 할 때나 내가 가사일을 하는 동안 아기는 혼자 놀거나 TV를 보도록 한다.
22. 아기가 예쁘게 보이든지 아기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2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24.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발달장애가 있지 않나 걱정된다.
25. 아기가 심심해할 때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을 아기에게 가지고 가서 아기를 즐겁게 해준다.
26. 아기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라도 곧바로 아기의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
27. 남편이나 친척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겨두었을 때 아기가 혹시 방치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진다.
28.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이의 행동에 매우 예민해지고 신경질로 반응하게 된다.
29. 아기 때문에 힘들다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30.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을 해주고 싶다.
31.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
32.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라는 생각이 든다.
33. 남편이 기저귀 같고 우유 주는 일등의 육아활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많고 섭섭하다.
34. 나는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